

# 인간 본성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심리학 여행

## 파블로프의 개

에덤 하트데이비스 지음

‘밀그램 복종실험’(1963년)과 ‘스탠퍼드 감옥실험’(1971년)은 불안정한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인간이 권위에 얼마나 복종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지원자 40명을 모집해 교사와 학생으로 나눴다. 학생이 오답을 말할 때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전기충격 강도를 높여 나가는 실험이었다. ‘사람은 때때로 비윤리적인 지시를 내리는 권위자에게 복종하기도 한다’는 ‘밀그램 복종실험’ 결과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는 1971년 유명한 ‘감옥 실험’을 했다. 대학 지하에 만들어진 모의 감옥에서 행해진 이 실험은 참가 학생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로 나눠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했다. 연구결과 ‘악인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시스템이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다. 영화 ‘스탠퍼드 감옥실험’(2010년 작) 한 장면.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교도소 실험’을 했다. 중산층 출신 대학생 24명을 선발한 후 무작위로 죄수와 간수로 나눴다. 대학 지하에 모의 감옥을 만들었다. 간수는 카키색 제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죄수들은 수치표를 주는 죄수복을 입었다. 실험은 실제 감옥처럼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6일 만에 조기 종료됐다.

영국 과학해설자 에덤 하트데이비스가 쓴 ‘파블로프의 개’는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의 지령이 연구부터 스위스 비크나 렌겐하거의 유체이탈 실험까지 시대별 50가지 실험을 통해 ‘마음의 과학’인 심리학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 책은 ▲심리학의 태동(1848~1919) ▲행동주의의 도전(1920~1940) ▲변화하는 관심사(1941~1961) ▲마음과 뇌와 다른 이들(1962~1970) ▲인지혁명(1971~1980) ▲의식 속으로(1881~) 등 6개 장으로 구분해 인간 본성에 감춰진 열쇠를 찾아나간다. 학자들은 기억과 편견, 학습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1901년 개를 이용한 동물행동을 연구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직전에 특정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개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조건반사’(조건 반응)이다. 미국 심리학자 존 왓슨은 1919년 파블로프의 연구를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아기 앨버트에게 흰쥐 등 동물을 보여주며 ‘무조건적 반응’(공포)을 조건화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 실험결과 인간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감정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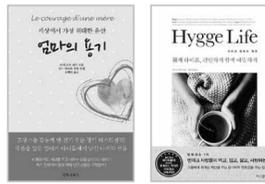
이 실험은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저자는 ‘우뇌와 좌뇌가 분리된다면’(마이클 가자니기), ‘제정신으로 정신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데이비드 로젠), 유체이탈 여행이 가능할까’(비크나 렌겐하거), ‘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윌리엄 밀러) 등 흥미롭고 기발한 심리학 연구 내용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요즘, 이 책은 심리학 역사를 살펴보는 동시에 자신 내면의 ‘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시그마북스·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그림자 노동의 역습=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의 실상을 파헤쳤다.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램버트는 오스트리아의 사회사가 이반 일리치가 주장한 ‘그림자 노동’ 개념에 착안해 오늘날 현대인이 보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아울러 일상 전반에 폭넓게 파고든 그림자 노동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민음사·1만6000원>



▲킬러 베스트 도어=영미 최고의 추리 소설에 주어지는 에드거 상을 수상한 알렉스 마우드의 두 번째 장편소설. 런던 남부의 허름한 아파트 23번지. 그곳에 모여든 여섯 명의 사람들. 고독한 독신남 토머스. 친절한 이란인 망명자 호세인, 은둔형 외톨이 제라드, 가솔 소녀 세릴. 그곳에서 칠십 평생을 산 베스트. 도망자 콜레트까지. 우연히 이사 오게 된 콜레트는 첫날부터 음침한 기운을 느껴 떠나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집주인 로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다. <레드박스·1만4800원>



▲엄마의 용기=서른 여섯 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마리-로르 피카의 실제 이야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받고 치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평소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트럭 운전사인 남편에게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열한 살 된 네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부부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하기 위한 협약을 행정절차를 밟는다. <문학세계사·1만2000원> ▲회계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듯하

게=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행복연구소 CEO인 저자 마이크 비킹은 지금까지 자국의 복지 시스템과 교육의 질이 덴마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겼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간과한 ‘진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회계(hygge)’였다. 회계는 ‘덴마크 행복의 원천’이자 ‘삶의 기초석’이다. 책은 덴마크 행복의 비밀인 ‘회계’를 심도 깊게 파헤친다. <위즈덤하우스·1만4000원> ▲학력의 경제학=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0.9%로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전체 실업자의 32%가 4년제 대졸자다. 저자인 니시카와 준은 오랜 교육현장 경험을 토대로 급격한 산업의 변화를 분석하며 대학 진학의 상식이 바뀌고 있음을 역설한다. 대졸자의 실업률, 비정규직 문제, 학자금 대출 등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반경교사 삼아, 우리 학부모와 교사, 사회가 한번쯤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과나무·1만4000원>

##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

###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정이현 지음

소설가 정이현은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달콤한 나의 도시’ 등 장편소설로 유명하지만 그녀 작품의 매력은 단편 소설에서 빛을 발한다. 첫 소설집 ‘남만적 사랑과 사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삼풍백화점’ 등이 실린 ‘오늘의 거짓말’ 등 단편집은 흥미롭다. ‘너는 모른다’와 ‘냉정과 열정 사이’의



폭력의 시대’를 펴냈다. 책에는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렸다. 9년만의 작품집이기는 하지만 2013년 이후 쓰여진 글들을 묶었다. ‘동시대인의 보폭으로 걷겠다’는 다짐을 늘 하는 그

녀에게 이번에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함께 펼쳐지지만 기존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소설 속 인물들은 친절하고 정으로 무심하게 모멸감을 주고받고, 이 ‘세련된 폭력’은 서로의 마음을 찢는다. 아이를 날아버린, 절없는 고등학생을 자식으로 둔 두 엄마의 이야기 등장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버지와 아버지의 옛 애인과 내가 등장하는 ‘미스조와 거북이와 나’, ‘밤의 대관람차’, ‘우리 안의 천사’ 등 수록작들은 아프게 다가오는 작품들이다.

그녀는 작가의 말에서 “이제는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의 시대인 것만 같다. 예의 바른 악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놓으면 손바닥이 칼날에 썩 베여 있다. 상처의 모양을 몰고다니며 들여다보다가 누구든 자신의 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빼앗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가슴 쓰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말이 다. 보통 표제작을 제목으로 쓰는 데 반해 이번 책은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제목으로 삼았다. <문학고지성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신비술로 날아간 수학=특별한 생각의 힘 ‘아하’를 찾아 떠나는 겐즈이 양이와 천방지축 몽이의 좌중우돌 수학 모험이 펼쳐진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자연의 법칙과 규칙들이 가득하다. 미지의 세계인 신비술에 양이와 몽이 형제가 들어가고, 그 숲에서 잃어버린 동생 몽이를 찾기 위해 형 양이는 ‘아하’를 찾아내야 한다. <파란자전거·1만900원> ▲숙제 안 하는게 더 힘들어=초등학교 4학년 유스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10분이면 끝낼 숙제 대신에 두 시간씩 걸려서 재미있는 거짓말을 만들어 오는 아이들. 어른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법이다. <책과공나무·1만원> ▲거꾸로 판사 똑바로 판결=사건을 걸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문



제의 근원을 파악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거꾸로 판사 이야기다. 거꾸로 판사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판결은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양심을 일깨워 스스로 잘 잘못을 깨우치도록 이끌어 준다. <파랑새·1만2000원> ▲직업그림사전 1~4=초등학생이 궁금해 하는 직업 40여 개의 일터를 세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리즈. 8년간에 걸친 작업으로, 그림에 생생한 현장감이 깃들었다. 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일터를 소개하기 때문에 책을 펼치는 자신이 직접 일터에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청어람미디어·각 권 1만1000원>

###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 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